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한은 금통위원 일부 연임 가능성  
있나
- ◇ (시장진단)-달러/원 숏 깊었나..중동 정세  
불안에 급반등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살해에 항의한 시위가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미국과 영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WANA/로이터/나자린 타바타바에 기자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3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67.1	-0.5%	-0.9%	-3.5%	유로	1.1158	-0.2%	-0.5%	-2.3%
100엔 대비	1,077.6	-1.7%	-1.4%	-4.4%	엔	108.08	1.2%	0.5%	0.9%
유로 대비	1,300.2	-0.4%	-0.5%	-1.3%	위안	6.9643	0.4%	0.0%	-1.3%
위안 대비	167.23	-0.9%	-0.9%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8,634.88	0.0%	0.3%	22.3%
코스피	2,176.46	-1.3%	-1.0%	7.7%	나스닥	9,020.77	0.2%	0.5%	35.2%
코스닥	669.93	1.3%	0.0%	-0.9%	S&P500	3,234.85	-0.2%	0.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56.47	0.2%	0.7%	15.8%
국고채 3Y	1.270%	-10.0bp	-9.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61%	-12.4bp	-11.9bp	-40.4bp	미국채 2Y	1.533%	-5.6bp	-2.8bp	-93.7bp
국고채 10Y	1.555%	-12.8bp	-12.8bp	-26.5bp	미국채 10Y	1.793%	-8.0bp	-11.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63.05	2.2%	3.3%	34.5%	한국 5Y	22.3bp	1.0bp	1.3bp	-17.0bp
금(현물)	1,551.40	2.7%	2.3%	18.3%	일본 5Y	17.8bp	0.0bp	0.0bp	-4.0bp
TR상품지수	2,475.72	-0.2%	-0.4%	4.8%	중국 5Y	32.0bp	1.2bp	1.3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월 6일(월)>

- 한은, 12월말 외환보유액(06:00)

### <7일(화)>

- 한은, 2019년 11월 국제수지(08:00)

### <8일(수)>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10:00)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 <9일(목)>

- 기재부,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설명
- KDI 경제동향(12:00)
- 한은,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12:00)

### <10일(금)>

- 한은, 2019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2019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월 6일(월)>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9:30)
-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12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18:00)
- 유로존, 1월 섉틱스지수 (18:30)
- 유로존, 11월 생산자물가 (19:00)
- 미국, 12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 (23:45)

### <7일(화)>

- 일본, 12월 서비스업 PMI (9:30)
-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9:00)
- 유로존, 11월 소매판매 (19:00)
- 미국, 11월 무역수지 (22:30)
- 중국, 12월 외환보유고 (미정)
- 미국, 11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자정)
- 미국, 11월 공장주문 (자정)

### <8일(수)>

- 일본, 12월 소비자신뢰지수 (14:00)

- 유로존, 12월 기업환경지수 (19:00)
- 유로존, 12월 경기체감지수 (19:00)
- 유로존, 12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2월 ADP 전국고용동향 (22:15)
- 미국, 11월 소비자신용 (9일 오전 5:00)

### <9일(목)>

- 중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 소비자물가지수(CPI) (10:30)
- 유로존, 11월 실업률 (19:00)
- 미국, 12월 챌린저해고건수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10일(금)>

- 일본, 11월 가계지출 (8:30)
- 일본, 12월 외환보유고 (8:50)
- 일본, 11월 경기 동행 · 섉행지수 (14:00)
- 미국, 1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22:30)
- 미국, 12월 실업률 (22:30)
- 중국, 12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10~17일)
- 중국, 12월 위안화 신규대출 (10~17일)
- 중국, 12월 외국인직접투자(FDI) (10~17일)
- 미국, 11월 도매재고 수정치 · 도매판매(자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이란 갈등의 추이를 보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55-1180 원이다.
- 새해 들어서도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써왔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지난 주말 일제히 하락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급락했다.
-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서의 정정 불안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 대립의 확산 여부가 당분간 시장 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또한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수급도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연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던 뉴욕 증시의 조정 여부에 시장 참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10일 발표될 미국의 12월 고용 동향에 대한 시장 관심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일에는 중국의 12월 생산자물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 초 국고채 입찰, 미국과 이란의 추가 충돌 등 중동 정세 등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난주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새해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기관 운용역들이 포지션을 채워가려는 생각들을 했던 듯하다.
- 자금 집행이 이어지면서 만기 1~2년 구간으로의 매수세도 늘어난 상황이었다. 예상보다 금리 하락세가 커지면서 급해진 기관들이 쫓기듯 매수한 게 금리 낙폭을 키웠다.
- 난데 없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 뉴스가 터진 것이 시장 변동성에 기름을 부었다.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하면서 금리 하방에 대한 부담감은 커진 상황이다. 일단 장기물로 매수세가 옮겨 붙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고채 입찰이 변수다.
- 국고채 30년물 입찰을 기점으로 일정 부분 추가 금리 하락세는 막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미국과 이란이 또 한번 충돌할 경우 장기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초점)-한은 금통위원 일부 연임 가능성 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올해 4월 임기 만료를 맞는 금융통화위원 중 일부의 연임 가능성이 갑작스럽게 부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 다과회에서 일부 금통위원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데 따른 영향이다.

한은 관계자들은 금통위원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영두에 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과반 동시 교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위원 연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은 총재,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 '노 코멘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이 총재다. 이 총재는 이날 '네 명의 금통위원 교체 이후 통화정책의 단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 분의 교체를 기정사실화하시느냐. 이번에 네 분이 다 바뀌는 것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새해를 맞아 전반적으로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뤄진 질의응답이었지만 이 총재의 언급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은 이어졌다. 곧장 금통위원들의 연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 총재는 "노코멘트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뚜렷이 갈리는 상황인 만큼 임기 종료에 따라 어떤 성향의 인물이 새롭게 합류하느냐는 시장의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금통위원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다 보니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임지원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 견을 내면서 매파로 자리매김한 것도 향후 선임될 금통위원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요인이다.

4월에 4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퇴임하면 임위원이 순식간에 선임 금통위원으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일부 금통위원이 연임될 경우 향후 금통위의 색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2018년 한은법 개정안 부칙 감안할 때 이일형·고승범 위원 가능**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20일에 끝난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윤면식 부총재 역시 임기가 3년으로 8월 20일에 만료된다. 올 한 해 동안 5명의 금통위원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금통위원의 임기가 겹치게 되면서 과반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8년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통위원 임기 만료 직후부터 선임위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선임위원의 임명이 늦어진다고 해도 금통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리는 경우는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올해다. 올해 네 명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다시 4년 후에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은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칙을 뒀다.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금통위원의 경우 이번에만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이다.

금통위원들의 임기 만료가 겹치는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는 의미다.

개정 한은법에 올해 금통위원 교체와 관련한 부칙을 삽입한 만큼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연임될 경우 오히려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3년 임기의 새 금통위원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인사를 연임시킬 경우 큰 문제는 없다. 현재 이일형 위원(한은 총재 추천)과 고승범 위원(금융위원장 추천)이 그 대상이다.

한 해 동안 금통위원이 다섯 명이나 바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통위원 일부 연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은 인사들 '확대해석 경계'**

다만 한은 인사들은 이 총재의 이날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통위원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현시점에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초 가벼운 분위기의 자리에서 이 총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인 만큼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에 큰 무게를 실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금통위원 교체에 따른 통화정책 단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온 시점에 일반적인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재가 연임 여부를 직접 알았다고 해도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한 그 수준까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통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라며 "내부에서 금통위원 연임 문제가 거론된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98년에 한은법이 개정된 이후에 단 한 명의 금통위원 연임도 없었다"며 "다만 금통위원이 이번에 연임된다고 해도 부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진단)-달러/원 숏 깊었나..중동 정세 불안에 급반등**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3일 급하게 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날 6개월 최저 수준인 1150원 초반대로 레벨을 낮추기도 했던 달러/원 환율은 3일 1170원 부근으로 재빨리 반등 중이다. 이날 일중 저점 대비 10원 넘게 오른 환율은 달러/아시아 중 상승폭이 가장 크다.

미-중 무역합의 낙관론과 중국 지준을 인하여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가 위험선호심리를 부추겼지만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상하며 시장심리가 급격

하게 얼어붙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다소 깊었던 숯 포지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날 반등 탄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이끄는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와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이란 군부 사령관이 3일 바그다드 국제 공항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이라크 민병부대 대변인이 로이터에 전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솔레이마니 살해가 중동지역과 전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TV가 보도했다.

이같은 중동 정세 불안에 국제유가는 장 중 한때 4% 이상 급등하고, 주요 아시아 증시들이 하락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움츠러들었다. 금 현물은 1% 이상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급하게 발걸음을 위쪽으로 되돌리며 상승탄력을 키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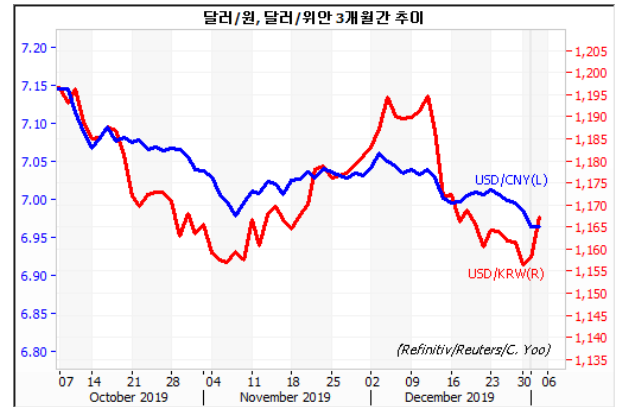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연초 다들 달러/원 아래쪽을 보면서 숯이 꽤 있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이날 리스크 온에 기댄 숯들이 커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3일 오후 2시 51분) 환율은 일중 고점 부근인 전일비 약 9원 오른 1167 원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일부 네고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환율은 추가 상승을 앞두고 머뭇거리고 있다.

결국 6개월 전처럼 1150 원대에 대한 단기 바닥 인식이 재차 확인되는 분위기다.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원화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 약세폭이 깊은 것을 보더라도 호재 쪽에만 초점을 맞추며 달러/원 숯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펀더멘털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시장 심리가 먼저 움직인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 중동 문제는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의 노이즈로 반복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1150 원대 바닥 인식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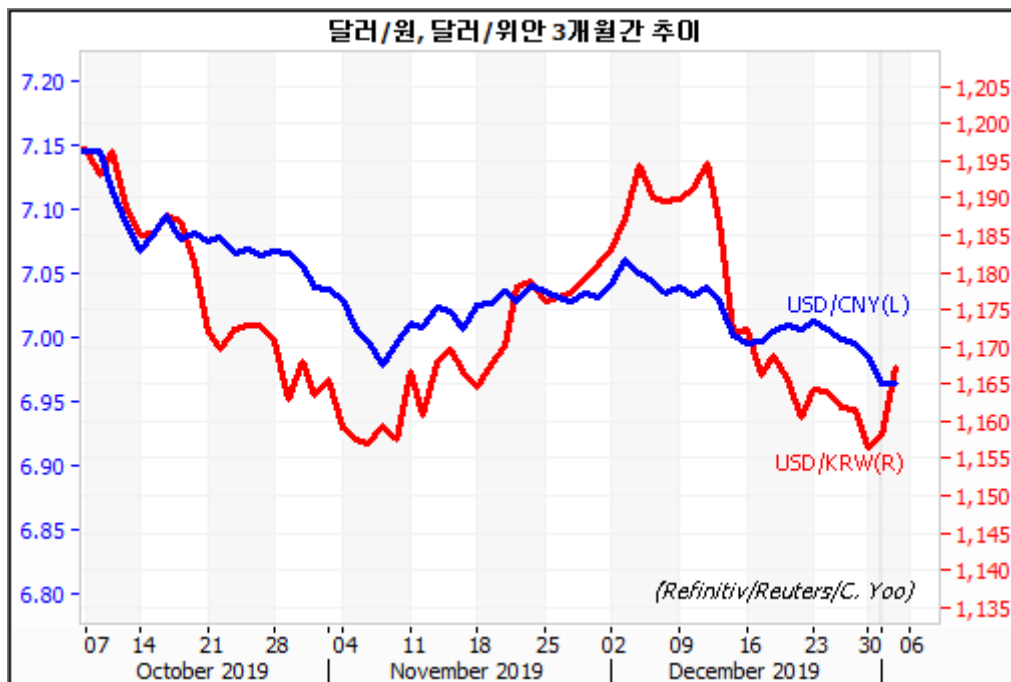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